

종합

“5+3 불가” 재확인

이윤호 지경부 장관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17일 ‘5+2 광역경제권’을 ‘5+3’으로 재조정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한 조찬간담회에서 “이미 5+2 경제권에 맞춰 시책이 시행 중이며 예산도 배정되고 있다”며 “5+3 광역경제권으로 재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만나 호남지역에 2개의 광역경제권을 갖도록 하는 ‘5+3 광역경제권’으로의 변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대차 국면이 마무리되는 대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당 지도부 간 2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정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5+3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안 함초 생산기지 육성

30억 들여 유통센터 건립

신안이 세계적인 함초 생산기지로 육성된다. 신안군은 함초를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남해안과 서해안 간척지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인 함초는 통통하고 마디마다 튀어나온 풀이러 하여 ‘통통마디’로도 불리며 변비 해소와 이뇨 등을 위한 각종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신안에는 17개 농가가 261ha에서 연간 371t의 함초를 생산해 생초, 액상, 환, 분말, 함초소금 등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특히 2007년 6억4천만 원을 지원해 함초 가공공장 두 곳을 지은 데 이어 내년부터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해 함초 산업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후보 사퇴 천성관 지경장

비공식 퇴임식 갖고 물러나

검찰총장 후보를 사퇴한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났다.

서울중앙지검장 퇴임식은 그간 2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로 열렸지만 이날은 6층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 자리엔 부장검사 이상 간부가 참석했으며, 그간 행적을 담은 동영상도 시청하고 간단한 퇴임사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퇴임식을 마친 천 지검장은 브리핑실에서 사무관급 이상 일반 직원과 개별인사를 나눈 뒤 청사를 떠났다.

천 지검장은 지난날 21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전격적으로 발탁됐지만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가 아파트 매입자금의 출처, 급전 관계가 있는 사업가와 해외골프, 명품 구입 등 개인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청문회 다음날 후보를 사퇴했다.

천 지검장이 공식 사퇴함에 따라 검찰총장 자리와 함께 고검장 9석이 모두 비게 됐다. /연합뉴스

농경지 2,384ha 침수·주택 63채 파손

전남 집중호우 2차피해도 눈덩이... 1·2차 재산피해 170억

지난 7일 집중호우에 이어 15~16일 광주·전남지역에 또다시 평균 184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틀간 내린 비로 광양과 구례에서 2명이 실종되고 6개 시·군에서 주택 63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다.

농경지는 순천 547ha, 해남 530ha, 나주 450ha, 무안 430ha, 광양 326ha 등 총 2천384ha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신안지역 염전 131ha와 염전창고 4채도 물에 잠겼으며 광양에서는 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3개 시·군의 도로와 교량 30곳과 지방하천, 소화천 등 30여 곳의 독 일부가 무너졌다.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사유·공공시설을 포함해 3억6천만 원이지만 피해신고와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내린 비로 인한 전남도 피해는 2명 사망에 재산피해액은 16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율은 97%에 이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주천이 한때 범람위기를 맞으면서 광주교 아래 산책로 50m가량과 저수호완(물과 둔치 경계에 만들어진 구조물) 200m가량이 유실됐다.

한편 16일 장맛비에속은 배수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됐던 70대 노인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순천소방서는 17일 오전 9시45분께 구례군 광의면 방광저수지에서 김모(73)씨의 시

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눈에 나갔다가 물이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진 수로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휴일에 장맛비

주말과 휴일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장맛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8일 광주·전남은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며 “이번 비는 휴일인 19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17일 예보했다.

이틀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80mm.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진교통문화 운동본부

집행위원단 위촉식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대표 김양근)는 17일 동구 지산동 무등파크 호텔 4층 연회장에서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과 박영렬 광주지검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 범시민운동본부 고문단 및 집행위원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30일 출범한 범시민운동본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적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호타이어 706명 정리하고 통보

노조 강력 반발

금호타이어가 임금협상을 놓고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노조측에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방침을 통보해 해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이 이날 노조에 ‘정리하고 협의 요청서’를 정식으로 전달했다. 정리하고 협의 요청서는 단체협상 안에 따라 정리하고 60일전에 사측이 노조측에 전달할 수 있고, 노사는 향후 정리하고

회피방안과 기준,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회사측은 16일 열린 제13차 본교섭에서 기존에 제시한 2년간 임금동결, 학자금 지급 중단 가운데 임금동결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거절해 부득이하게 정리하고 협의 요청서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의 정리하고 협의 요청에 대해 노조측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한사람도

정리하고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회사측은 임금 7.48% 인상 등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동결로 맞서면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체 인력의 13.3%에 해당하는 706명을 정리하고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맞서 노조측은 지난 15일부터 생산량을 50%로 줄이는 태업을 벌이고 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印尼 호텔 폭탄 테러 9명 사망

자카르타 매리어트 등 2곳서... 도신우 모델협회장 부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매리어트 호텔과 리츠 칼튼 호텔에서 17일 오전(현지 시각) 폭발물이 터져 9명이 숨지고 한국인 1명 등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과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위도도 정치안보조정장관은 “오전 7시50분경 강력한 폭발이 잇따라 폭발했다”며 “이번 폭발사건으로 내외국인 9명이 숨지고 50

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망자 중 6명은 매리어트 호텔에서, 2명은 리츠 칼튼 호텔에서 나왔고 1명은 병원으로 옮긴 후 숨졌다. 부상자들은 인근 MMC와 매디스트라 병원 등에서 치료중이다.

이번 사건의 배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는 국제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의 동남아

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야(JI)가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인 부상자는 문화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중인 모델협회장 도신우씨로 확인됐다. 리츠 칼튼 호텔에 투숙한 도 회장은 폭발 사건 직후 언론과의 통화에서 “호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위해 음식을 가지러 가는데 갑자기 ‘뽕’ 소리가 나면서 쓰러졌다”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종아리와 발꿈치 등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 뿐 크게 다친 않았다”고 말했다.

매리어트 호텔 측은 경우 지난 2003년에도 차량 폭탄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졌으며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폭탄 사건으로 202명이 숨졌었다. /연합뉴스

시설

‘기상이변’ 대비 재해 시스템 재정비 해야

올해 장맛비가 심상치 않다. 가히 ‘물 폭탄’ 수준이다. 16일 부산에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는 시간당 90mm의 극지성 폭우가 쏟아졌으며 전남 남해안과 내륙지역에도 강풍과 함께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장대비로 곳곳이 침수되는 비 피해를 입었다.

오랜 가뭄으로 상수원이 말라붙어 제한급수를 검토할 정도였던 광주지역에는 이날 들어서만 누적 강우량이 496.5mm에 달했다. 쏟아지는 폭우로 광주천에 설치됐던 환경친화적 치수시설이 망가지고 범람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역별 돌림 현상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지난 7일 새벽 신안군 자은도에는 1시간 동안 108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같은 날 오전 7~8시 광주에는 70mm의 장대비가 내려 7월 상순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다.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잦은 것은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이변과 유사한 집중호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

기상이변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기존의 방재 시스템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다. 주요 간선도로나 하천에 대한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집중 호우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4대강 살리기도 물론 뚝터와 이상 기온에 대응하는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예보만 정확해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의장 나눠먹기’ 안 지켰다고 등원 거부라니

집권 한나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제헌절까지 ‘여야 동거점’이라는 희대의 블랙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광주의 한 기초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장단 1년씩 나눠먹기’ 밀약(密約)을 지키지 않는다며 등원을 거부해 임시회가 무산됐다고 한다. 여야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락에 사로잡혀 서로 내 탓만 하며 싸움질로 날을 지새우는 국회 모습도 지극히 현실이다. 이제는 기초회의의 말도 안 되는 갑부싸움까지 지켜봐야 하는 지역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나라 의회정치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제 180회 임시회의가 열렸으나 일부 의원의 등원 거부로 이를 통한 공전

됐다고 한다. 그런데 등원 거부 이유가 가관이다. 지난해 말 현 의장단과 약속한 ‘의장단 1년씩 나눠먹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서구의회 의원들은 기초회의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지방자치법에 기초회의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락에 사로잡혀 서로 내 탓만 하며 싸움질로 날을 지새우는 국회 모습도 지극히 현실이다. 이제는 기초회의의 말도 안 되는 갑부싸움까지 지켜봐야 하는 지역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나라 의회정치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어야 할 광주 서구의회가 빚어낸 한심한 풍경은 국회의 불행사나운 모습과 맞먹어 더욱 씁쓸하고 허탈하다.

광주·전남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성황

광주시가 4년 만에 개최한 광주·전남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간담회(사진)가 성황을 이뤘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간담회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8개 부처에 근무 중인 5급 이상 공무원 3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40분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와 첨단산업·문화수도 구현을 위한 1등 광주 건설, 광주 R&D(연구·개발) 특구,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설명하고 광주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간담회에서 “하계U대회나 세계김치연구대회 유치 등은 중앙부처



중앙부처에 인재가 키워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출신 중앙부처 간부들이 광주의 발전상을 경청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간담회를 경례화해 중앙과 지역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유엔, 첫 北 인사 5명 제재 확정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각)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북한 정부 인사 5명에 대한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s well as website and email addresses.

Advertisement for '빛의만점' (Light is Full) by Kim Jung-do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looking at a glowing object, with the text '지겨우니 따로 만들어 줍시다' (I'm bored, let's make it separately). The ad promotes a service that creates personalized light products.

Advertisement for '카드 연체율 6년만에 최저치' (Card delinquency rate lowest in 6 years). It highlights that the delinquency rate has reached 3.08%, a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5.3% in 2007. The ad lists the top 5 banks by delinquency rate: Shinhan Bank (3.08%), Woori Bank (3.12%), KB Kookmin Bank (3.15%), Hana Bank (3.18%), and Industrial Bank of Korea (3.21%).